

<동북조선초중급학교> 졸업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에 정진하여 졸업의 큰 영광을 안은 김령화 학생에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한 번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김령화 학생의 졸업은 본인의 노력 이외에도 윤종철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교직원, 선·후배 학생, 학부모님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을 것이라 생각하며 오늘의 졸업식이 있도록 헌신하고 노력한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서서 김령화 학생이 꿈꾸어 왔던 희망을 위해 다시 한 번 준비하고 뛰어날 때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김령화 학생이 우리 민족을 대표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노력한다면 그 어떠한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지진이라는 자연재해로 <동북조선초중급학교>와 <조계종>이 우연히 맺어진 인연이지만 피를 나눈 같은 동포로서 그 어떠한 인연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민족의 정신을 지키고자 헌신하는 <동북조선초중급학교>의 모습에 찬사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동북조선초중급학교>의 졸업식을 축하하며, 졸업생인 김령화 학생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윤종철 교장선생님 및 교직원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동북조선초중급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염원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